## 물거품을 위한 경고들

안전 수칙을 말하기에 앞서 설명드립니다. 안전 수칙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미 존재하는 위험들 중에서 당신이 할 법한 행동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당신이 할 법한 행동에서 새로운 위험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1. 당신은 옷을 벗습니다. 주위엔 옷 벗은 사람들뿐이지만, 누구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여긴 실낙원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은 더 이상 죄의 표지가 아닙니다. 가급적 부끄러워하십시오.

2. 당신은 커다란 탕의 중간에서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물거품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멍한 상태로 말입니다. 물거품 위로 희부연 물안개가 이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디까지가 수면인지 헷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하십시오, 물 밖과 물 안을. 들숨과 날숨을.

3. 당신은 구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어렸을 적의 기억입니다. 수면이 일렁였고, 나는 뜨거운 물거품 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빛나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 같았습니다. 물거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탕 속을 헤엄치는 건 나의 상상력이었죠. 그때 배수구가 내 머리카락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빠져나올 수 없었고, 날숨은 물거품이 되어 수면 위로 오르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어린 시절이라니, 안전 수칙에게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전 수칙은 늘 기억과 상상으로만 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충분히 조심하지 못한 기억으로 이루어진 수칙을. 충분히 추측하지 못한 안전 수칙을 능가하여 새로운 위험으로 돌입해버릴 당신의 상상력을.

**야화**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쥐가 되고 싶어요.
손톱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쥐 말이에요.
대답을 잘 피하는구나,
쥐가 된다면 어떤 손톱을 먹고 싶니?

집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손톱을 찾았다. 내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 길고 딱딱했다. 그게 어디서 떨어져 나왔을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이 집에 혼자 사는
나의 손톱인지, 이 집에 살지 않는 누군가의 손톱인지,
둘 다 아니라면 주인이 없는 손톱인지.
주인 없는 손톱을 먹는 쥐가 되고 싶어요.

대답을 아주 잘 피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만약 작고 귀여운 쥐가 된다면, 넌 실험용 쥐일 거야. 손톱 대신 좋은 사료를 먹으며 살게 될 거다. 인간이 먹는 것보다 비싸고 좋은 것, 실험 일지에는
네 표정까지 기록될 거다. 네 고통은 표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테니까.

죽은 사람의 손톱을 먹으면 나도 죽는 걸까?
실험은 종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게 네가 원하는 바 아니었니?

나는 나의 손톱을 모은다.
다시 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쩔 땐 미리 먹기까지 한다.

## 생분해성 모델하우스

우리는 풀과 꽃을 짓이겨서 요리하며 놀곤 했지

먹을 수 없는 요리
입을 수 없는 옷
그런 걸 놀이라 부른다

놀이의 종류는 많을수록 좋았다
우리는 무엇이든 쉽게 질렸으니까

토끼풀을 빻던 네가 새로운 놀이를 제안했다
나갈 수 없는 문을 만드는 놀이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렸다 우리 키만 한 문을
우리는 각자 상상하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너는 꿈을 상상하며 즐거웠다

너는 남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제 학교에 두고 왔어 고백 쪽지를
욕을 쓴 종이를
털이 나기 시작한 겨드랑이 본 적 있어?

그렇게 문 속은 깊어지고
해는 점점 진다
이제 집에 갈 시간

그러나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그린 문은
닫히지 않는 문이라는 것을

모래를 뒤엎고 헤집어도
그게 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날 너와 나는 닫지 않은 문을 갖게 되었지

우리는
서먹하기 시작했다

잘 지내?
상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네 생각이 났어

나는
네가 요즘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간혹 식은땀은 흐르지
무언가 들킬 것처럼

## 가역적인 경전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상상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 아빠가 그랬잖아. 미역과 다시마를 헷갈려서. 다시마가 들어간 미역국을 내 앞에 두고. 먹기 전까지 몰랐지. 난 거짓말하기 싫어. 맛없는 걸
맛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먹어보기도 전에
상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상상이 좋았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상상할래. 상상하고 싶어, 우주 바깥을. 친구의 꿈속을.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단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빠도 몰라. 상상하고 싶어, 아빠도 모르는 것을.
그런데 아빠.

어떡하지? 상상에게 아빠를 빼앗겼어.

상상을 너무 많이 빌려서.
내 아들은 죽음을 데리고 무슨 상상을 했을까? 나의 상상 속에서
아빠는 생각해.

아들의 일기장을 훔쳐보고 싶다고. 아들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대. 천국은 비좁아도 상관없지, 1인분이니까. 그런데 겨우 이런 상상을 하려고 내가 죽었니? 아빠를 죽였니?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요.

기회를 줄게. 상상에게 빚을 다 갚으렴. 아니,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어보렴. 그렇게 나는 울면서, 종이가 찢어지도록 세차게 지우개질을 했다.

그러니까요 누나, 삼촌. 여기 있는 나의 가족들. 이건 다 상상이에요. 빼앗긴 것을 찾으러 왔어요. 네 마음은 알지만 우린 찾을 수 없단다. 상상은 너무 넓고 네 아빠는 길을 잃었어. 우리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다. 너도 알지?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미 다 말했는걸요…

## 무대 청소

주일 아침
주마등 같은 꿈을 꿨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 대신
지금까지 사모은 인형들이 나오는

그들이 저마다의 눈으로 날 보고 있었다고 말할 때
식은땀이 흘렀다

엉덩이에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아기토끼는 내가
몰래 자위를 시작했을 때 옆에 있었고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눈 한 쪽이 떨어져나간 곰은
엄마의 불륜을 목도한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묻고 싶었다

나는 언제
자위를 그만두었어야 하나

내가 울 때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말했지

신도 인형처럼 성기가 없을까

주일 아침
노출증 있는 사람들이
기도회에 모여 있다

왜 사람은 옷을 벗지 않고도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저기요, 보지 마세요
나는 기도했다

들어줄 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여기는
꿈속과는 다른 세상
더는 외롭지 않은 사람들 곁에서

나도 외롭지 않았다